

-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

이피

전쟁의 현장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직접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쫓기다 죽고 다치며, 사랑하는 이를 잃는 사람들. 나는 그 전쟁 당사자가 아닌, 그러나 전쟁에 휩쓸린 사람들 개개인의 전쟁을 마이너스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해당해도 희생자들이 먼저 배신하고, 도발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만들 수 있다. 학교와 병원을 폭격하면서 너희가 먼저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성폭행을 당한 여자에게 네가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 죽은 사람,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온갖 이유를 만들어 비난할 수 있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덮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만일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폭력을 폭력으로 가리고 덮어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될 것이다. 남을 해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이 자명하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약속, 이것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핑계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전도된다. 그리고 때리고 죽인다.

폭력을 폭력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모호하게 위장된 언어. 나는 그 언어들을 전시장에 현수막으로 건다. 현수막의 글자들은 작가가 창제한 글자들로 쓰여 있어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없고, 읽는다 하더라도 폭력을 폭력으로 덮은 언어라 금방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사방의 현수막들은 분홍빛으로 떨고 있는 육체(조각 작품)들을 가리고 덮는다. 회화에는 죽거나 다친, 마치 식탁의 음식물처럼 진설된 희생의 제물들이 있다. 이 모든 희생들을 가리고 덮어버리면서 폭력은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마이너스 전쟁이 있을 수 있다.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누가 선인지 악인지, 누가 폭력인지 구별조차 불가능한, 그 안의 희생자들의 마이너스 전쟁.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쳐올 것만 같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치러야만 하는 제3차 세계대전. 절멸의 시스템과 프로그램들. 마이너스 3과 2분의 1 세계대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마이너스 전쟁의 모습을 조각, 회화, 설치로 구현했다.

On the battlefield, there are pluses and minuses—those who are engaged in the middle of war, those who are chased, injured, or killed, and those who lost loved ones. I call the war experienced by those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nflict, yet are swept up in it, “the Minus War.”

Countless victims can be blamed for a massacre under the pretext that they betrayed or provoked first. Schools and hospitals can be bombed with the excuse that they started the conflict. A rape victim can be condemned under the assumption that she was the instigator. We manage to blame the dead, and those who lost their families and homes, using every excuse we can manufacture.

Perhaps only humans cover up their own shame in this way. Human history moves forward by covering violence with more violence. Few people deny that hurting others is evil. Yet, this clear, reasonable, and ethical agreement is flipped upside down whenever specific interests make up excuses. Just like that, people strike and kill.

The ambiguously disguised language used to cover violence with more violence is what I have hung as banners in the exhibition hall. These letters are written in a script of my own creation, so that no one can easily read them. Even if someone manages to decipher the words, they cannot comprehend a language designed to conceal violence. These scattered banners veil and conceal the shivering pink bodies (the sculptures) beneath. In the paintings, the dead and injured victims are presented much like food laid out on a table. The Minus War unfolds here—one that disowns its own violence while continuously veiling and covering up these sacrifices. It is a war of victims where we can no longer distinguish prey from perpetrator, virtue from vice, or who is truly wielding the violence. A Third World War ever draws near, one we do not await, yet which awaits us. World War Minus Three and a Half—a system and program of annihilation—is waiting for us. I have materialized this Minus War through sculptures, paintings, and installations.